

존칭 접미사 '-님'과 '-분'에 대한 연구¹

이 회 두

(원광대학교)

Lee, Hee-Doo. 1998. On the honorific suffix '-nim (-님)' '-bun (-분)'. *Linguistics*, 6-1, 131-149.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honorific suffix '-nim (-님)' and '-bun (-분)'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nd to look over the actual aspects in their usag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 'Nim (-님)' was always used as an honorific title for the addressee, but has been widely used to designate inferior persons. In this case it only refers to referred persons in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superiors. However, '-bun' is never used for the addressee but only for the referred persons. (Wonkwang University)

1. 서론

이 논문은 현대국어의 존칭 접미사 '-님'과, 명사 및 존칭 접미사로 쓰이는 '분'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서, 현대국어에서 '님'과 '분'이 어떠한 양상으로 쓰이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쓰이는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님'은 '(남의 이름이나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어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부모님, 선생님, 주시경님)'로 풀이되어 있다. 반면에 '분'은 의존명사로 쓰여 '사람을 가리킬 때 높여 쓰는 말(이 분, 저 분)', '사람을 높여 세는 단위의 하나(한 분, 두 분)'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쓰이는 환경을 조사하여 보면, '-님'의 환경이 매우 다양하여 '분'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분'도 의존명사의 기능을 벗어나 접미사처럼 쓰이는 환경도 있어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1. 이 논문은 1998년 원광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한국어는 교착어적인 특성이 있어서 곡용어미인 조사나 활용어미인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통하여 존대를 나타내는 요소가 잘 발달되어 왔다. 현대국어에서 존칭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주격조사 '-께서', 여격조사 '-께' 및 종결어미 '-요' 등이 쓰이고 있고, 상대경어법의 화계에 따라 매우 다른 종결어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어법의 경향은 문법 형태소 중심에서 단어 중심의 경어법으로 바뀌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화자가 언어 사용의 중심을 문장보다는 어휘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선행명사에 '-님'을 연결하여 존대하는 용법이 확대되고 있고, 명사나 의존명사로 쓰였던 '분'도 선행명사에 연결되어 선행명사를 존대하는 존칭 접미사로 기능하는 예가 많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존칭 접미사 '-님'에 대해서는 단순히 존칭 접미사라는 사실 이외에는 그 쓰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람을 나타내는 존칭 의존명사 '-분'이 마치 접미사처럼 쓰이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님'과 '-분'의 차이를 밝히는 일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님'과 '분'의 역사적인 쓰임을 살피고, 현대국어의 사전 및 방언에서 쓰이고 있는 현상을 살피서 이 두 존칭 형태의 차이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존칭 접미사 '-님'의 쓰임

2.1. '-님'의 역사적 쓰임

신라 향가에서 존칭 접미사 '-님'은 한자 '主'로 표기되었다. (金鍾煥, 1984:16참조)²

- (1) a. 彌勒座主陪立羅良 (兜率歌) - 彌勒座主(도리스님) 모셔라 <池憲

2. 金鍾煥(1984:17)에서는 존칭 접미사 '-님'은 '主'이외에 음을 빌린 '任'자를 俗用으로 사용했었다고 지적하고, '씨'의 경우는 한자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英>, 미륵좌님 의시라라 <金善琪>
 b.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懺悔業障歌) - 淨戒스님을 디어내고
 <小倉進平>
 c. 善花公主主隱 (善童謠) - 善化公主님은 <小倉進平>, 善化公主니
 은 <徐在克>

존칭 접미사 '-님'은 명사 '님'에서 그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

- (2) 主 님 주 <訓蒙中,1a>, 主 님 주 <光千,27a>, 主 님 주 <類合上,16b>, 主 님 주 <石千,27a>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로 '어마님, 아바님, 아자바님, 아즈마님, 兄님, 누의님, 한아바님, 父母님'이 쓰이고 있고, 직명 호칭어 및 지칭어로는 '중님, 스승님'이 쓰이고 있으며, 의인화된 무정물 호칭어 및 지칭어로는 '드님' 등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일차적인 기능이 호칭어이고 이차적인 기능이 지칭어이다. 그것은 친족 명사일 경우에 대부분 '어마, 아바, 아자바, 아즈마, 한아바' 등과 같이 당시의 호칭어에 '-님'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 그렇다.

- (3) a. 어마님 드르신 말 엇더하시니 <龍歌090>
 b. 아바님 지하신 일홈 엇더하시니 <龍歌090>
 c. 아자바님내의 다 安否하시옵고 <釋詳6:1b>
 d. 아즈마님귀와<釋詳6,1>
 e. 十萬兩스 金으로 모든 중님내의 布施하시고 <釋詳24:46b>
 f. 兄님을 모뎡씨 <月千上:2a>
 g. 누의님내 더브러 즉자히 나가니 <月釋2:6b>
 h. 그 한아바님 轉輪聖王이 <月釋14:15b>
 i. 스승님 尊하논 고디오 <月釋14:21a>
 j. 드님의 구름 씨듯 하엿거늘 <月釋14:60b>
 k. 金色 모야히 드님光이러시다<月釋2,51>
 l. 淨飯王 모아드님 悉達太子 | 城 밧과 나 <月釋21:195b>

m. 父母님이 사랑하더시니 <月釋22:3a>

그러나 ‘아들님, 아드님, 딸님, 쓰님’ 등은 존대자에게 소속된 손아랫사람이지만 ‘-님’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님’의 기능이 일차적으로 지칭어로, 이차적인 용법으로 호칭어로 쓰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4) a. 아들님 誕生 하시고 <月千上:12a>
 b. 淨飯王 아드님 悉達이라 <釋詳6:17a>
 c. 딸님을 얻이승 닐니 <月釋22:18a>
 d. 한 쓰님 나코 그 아비 죽거늘 <釋詳11:40b>

16세기 국어에서는 15세기 국어와 유사하게 쓰이는데, 친족 호칭어로는 ‘아자비님, 할마님, 아으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5) a. 큰 현님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羈老上,1a>
 b. 스승님의 글 들좁고 <羈老上,3a>
 c. 모아자비님 아순아즈바님 <羈老下,3b>
 d. 山南의 한 할마님 長孫 夫人이 <羈小九,29a>
 e. 하마 중 되여 조한 중님을 피셔 <誠初2b>
 f. 文王 아드님이라 <小學4,012b>
 g. 武王 아으님이라 <小學4,013a>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사용된 몇 가지 친족 어휘에 대하여 그 평칭과 존칭어의 관계를 조항범(1996)을 참고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母’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어씨, 어미, 어마, 어마님’ 등이 있었다. 이 중 ‘어씨’는 이미 15세기에 ‘母’의 친족 어휘로서 단어의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표적 어휘는 ‘어미, 어마, 어마님’ 이었다. ‘어미, 어마’는 평칭, ‘어마님’은 존칭이었는데, 평칭형 중 ‘어미’는 지칭, ‘어마’는 호칭으로 출발하였고, ‘어마님’은 호칭

3. 선행명사의 중성이 ‘르’일 경우에는 ‘르’이 탈락되는 현상이 규칙적이다. 예를 들면 ‘아들님>아드님, 딸님>쓰님, 돌님>드님, 선달님>선다님’ 등을 들 수 있다.

으로 출발하였으나, 지칭의 기능까지 겸하게 되었다.

후기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 사용된 '父'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아비, 아바, 아바님' 등이 있었다. 평칭의 '아비'는 지칭 기능을, '아바'는 호칭 기능을 담당했으며, 존칭의 '아바님'은 호칭 기능과 지칭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祖母'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할미, 할마, 할마님'이 있었다. 평칭어인 '할미, 할마' 중에서 '할미'는 지칭어, '할마'는 호칭어로 쓰였으며, '할마님'은 호칭과 지칭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祖父'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한아비, 한아바, 한아바님'이 쓰이고 있었다. '한아비'는 지칭어로 쓰이고, '한아바'는 호칭어로 쓰였으며, '한아바님'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姑母'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아즈미, 아즈마, 아즈마님'이 쓰였다. '아즈미'는 평칭의 지칭어로, '아즈마'는 평칭의 호칭어로 쓰였고, '아즈마님'은 존칭으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伯叔父'와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아자비, 아자바, 아자바님'이 쓰였다. '아자비'는 평칭의 지칭어로 쓰이고, '아자바'는 평칭의 호칭어로 쓰였으며, '아자바님'은 존칭으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母	父	姑母	伯叔父	祖母	祖父
지칭어	어미	아비	아즈미	아자비	할미	한아비
호칭어	어마	아바	아즈마	아자바	할마	한아바

이밖에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전반기에서 사용된 '兄'과 관련된 친족

어휘에는 ‘형, 형님’이 쓰였다. ‘형’은 평칭이었고, ‘형님’은 존칭으로 쓰였는데, 둘 다 지칭과 호칭을 겸하고 있었다. ‘女兄弟’와 관련된 친족 어휘로 ‘누의, 누의님’이 쓰였다. ‘누의’는 평칭이면서 지칭어로만 쓰이고, ‘누의님’은 존칭으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이미 중세국어에서 평칭의 호칭어인 ‘아바, 어마, 아자바, 아즈마, 한아바, 할마’ 등에 ‘-님’이 연결되어 존칭의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칭어로서의 기능은 이차적인 기능으로 보인다.

17세기국어에서는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로 ‘식어마님, 각시님’ 등이 추가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식어마님이 만일 구티어 하면 <東新烈1,85b>
 b. 홀논 식어마님의 절하고 물러 와 <東新烈2,26b>
 c. 각시님 <譯語上,26b>

18세기국어에서는 직명 호칭어 및 지칭어로 ‘부더님, 訓長님, 老丈님, 國王님, 세존님’을 볼 수 있고, 일반명사에 존칭 접미사가 연결된 ‘손님, 벗님’이 나온다.

- (7) a. 堂客 안스손님 <譯語補33a>
 b. 부더님이 도리턴에 계샤 <地藏上,1a>
 c. 보살엔 엄마님이 사라 이셔 <地藏上,12b>
 d. 각시님 <申部方言,35b>
 e. 訓長님이 괴로와 하실가 하옵니 <隣語3,22a>
 f. 老丈님과 내 父親과는 同甲으로 <隣語3,28a>
 g. 손님너 네 南京치물 하려 하논다 <老乞重下,23b>
 h. 우리 선중 벗님너도 각가 가며 알아보시 <권선곡1b>
 i. 우리 國王님과 부모와 <念桐29a>
 j. 서가 세존님은 삼계도 스시고 <念桐40b>

19세기국어에서는 '하느님, 누님, 시안님' 등이 추가된다.

- (8) a. 하느님 山平海渴토록 우리 聖主 萬歲 <蘆溪,22b>
 b. 누나(妹) 누님(姉) <한영조전,378>
 c. 시안님(上典主) <한영조전,536>

20세기 초기 자료인 경판본 고소설에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로 '오라바님, 시모님, 서방님, 장모님, 마님, 도련님' 등이 쓰이고, 직명 호칭어 및 지칭어로 '마마님, 옥황님, 옥황상대님, 용왕님, 사도님, 성주님, 장조님, 성원님, 진스님, 원님, 칠성님, 판스님, 좌수님, 여사도님, 선심님, 임금님' 등이 쓰이고 있다.

- (9) a. 두 오라바님이나 살나 주셔든 <계축일기,상34a>
 b. .저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녜스오니 <김학공전,141>
 c. 부인을 불너 왈 부인님 부인님 학공조님 오시니이다 <김학공전,164>
 d. 별선이 염용 디 왈 시모님의 정성이업고 <김학공전,175>
 e. 서방님을 만나시면 <정진사전,67>
 f. 우리 덕 마마님의 장삿 부릴 일이 잇서 <정진사전,76>
 g. 석부모님 은덕을 <정진사전,87>
 h. 건넌방 마님은 뵈옵무하커놀 <정진사전,107>
 i. 방조늬 엇조오디 도련님 여러 말씀 그만하오 <남원고사 1,16b>
 j. 누님을 청하여 이 말을 고한대, <신계후전,11>
 k. 비나이다 옥황님전 비나이다 <김인향전,36>
 l. 용왕님은 극낙으로 천도하소서 하며 <김인향전,38>
 m. 물 되여 원님에게 설원하라 <김인향전,45>
 n. 명찰하신 성주님을 맞사와 <김인향전,49>
 o. 울며 곁오디 스승님의 성신이 진실노 죄 잇거니 <구운몽 1,10a>
 p. 심원님 덕분의 술거지이다 <홍부전,17b>
 q. 보살님 화상이니 <정진사전,64>

- r. 진스님은 휘침하여 계시니잇가 <정전사전,83>
- s. 칠현금 거문고로 칠성님께 칠칠슈로 비렸더니 <남원고사 3,33a>
- t. 여보시오 판스님 <남원고사4,42b>
- u. 좌수님 상을 살피오니 <용고집전,101>
- v. 어사도님 대덕으로 죽을 소저를 <신계후전,34>
- w. 원컨더 선심님께 옵서 가라치소서 <삼선기,251>
- x. 새로히 수양대군이 임금님 위에 나아가고 <신숙주부인전,2>

중세국어에서는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와 아주 높은 관직이나 직책의 호칭어 및 지칭어에만 붙던 ‘-님’이 19세기에서는 벼슬이나 직책의 이름에 널리 쓰이게 된다. 또한 ‘김풍헌님, 허판스님’과 같이 이름에도 연결되고 성씨와 함께 직책을 붙인 구성에서도 연결되는 예가 보인다.

- (10) a. 오호 김풍헌님 와 계시오 <남원고사4,36b>
- b. 허판스님 여보시오 <남원고사4,41b>
- c. 니풍헌님 이리 오오 <남원고사5,4b>

특이한 것은 ‘동성님, 아씨님, 부인님, 마노래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대등한 관계나, 손아랫 사람이라도 존대를 하고자 할 때는 ‘-님’을 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주로 존칭의 호칭 접미사의 기능과 지칭 접미사의 기능으로 쓰이던 ‘-님’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1) a. 동성님내 어린 주손들 드리오시고 <계축일기,하20a>
- b. 마노래님 물네질 <홍부전,20a>
- c.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용고집전,105>
- d. 마노래님 이 말 듣고 대경실색 <용고집전,105>

2.2. 전북방언에서 ‘-님’의 쓰임 -

‘한국구비문학대계’ 중 전라북도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을 조사하여 '-님'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아버님, 마나님, 사모님, 고모님, 행수님, 쟁인영감님, 숙부님, 당숙님, 처모님, 오라버님, 처형님, 빙장님' 등과 같이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 (12) a. 시부모님이나 데리고 <운주면,455>
 b. 그 안 양반 마나님 말을 듣구 그대로 하마구 갔어 <동상면,621>
 c. 성임허고 행수님허고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정읍신태1,511>
 d. 자기 쟁인영감님 잠모님 드릴라고 <태인면,373>
 e. 자기 작은 아버지 숙부님 가슴을 보니까 <태인면,400>
 f. 잠모님 보내실라면 보내시고 <북면 186>
 g. 쟁인님 보내실라면 보내시고 <북면 187>
 h. 시숙님허고 서방님허고 가서 참 돈을 <칠보면,426>
 i. 조모님허고 얘기 어마님허고 <고창읍, 4>
 j. 김현수 중조부님이 장성에 울산 김씨라우 <고창읍,205>
 k. 내가 우리 당숙님 뵈러 왔다 <성송면,793>
 l. 아 처모님이 그러면 병환이 낮어요 <신림면,1312>
 m. 그 처형님이 제랑이 오니 맞을 수 밖에 <부안읍,207>
 n. 빙장님이 우리가 어제까지는 못 살다 <줄포면,299>

둘째, '나랏님, 상감님, 산신님, 감사님, 원님, 대감님, 진산님, 옥황상제님, 선비님, 도사님, 상전님, 지관님, 임금님, 조왕님, 산신령님, 염라대왕님, 군수님, 박사님, 대사님, 대부님, 중님, 수령님, 조각가님, 과객님, 대장님, 지사님, 목사님, 대주님, 군수님, 약방님, 농군님, 면장님, 봉사님, 승님'과 같이 직책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 (13) a. 아 쌤원님 그것이 뭇입니겨? <전주시,57>
 b. 용왕님의 내 아버지라고 뻥이를 치고 <전주시,102>
 c. 나라 상감님이 대통령이 시활을 다녔거든 <전주시,179>
 d. 그러나 산신님 어디든지 가서 나를 <전주시,181>
 e. 옛날에 감사님의 아 날 백성들한테 가서 <전주시,184>

- f. 그러니 그 영감님의 어찌겠어? <전주시,184>
- g. 그래 대감님 어디 계시냐고 말야 <전주시,267>
- h. 진사를 모셨다구 진산님이지 <운주면,314>
- I. 우리 육환상제님한테서 <운주면,325>
- j. 그 삼계님들이아 참 용한개 말도 않는다 <운주면,446>
- k. 아 지관님의 우리 산소를 <운주면,446>
- l. 임금님은 필로 저를 거시기 할라냐고 <운주면,450>
- m. 그래서 공자님이 됐다던가 <운주면,450>
- n. 그래서 맹자님이 됐다 <운주면,451>

셋째, ‘하느님, 땅님, 목신님, 하늘님’과 같이 의인화된 무정물 체언에 쓰이고 있다. 이때도 호칭과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 (14) a. 조계 이숙헌게로 와서 목신님! 목신님! 찾거던 <정읍정우 1,735>
- b. 세상에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태인면,22>
- c. 하느님 땅님여 그럴거 아녀? <이서면,819>

넷째, ‘호랑님, 토끼님, 여시님, 벌님’과 같이 의인화된 유정물 체언에 쓰이고 있다. 이때도 호칭과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 (15) a. 굴 있는 데를 가서 호랑님 호랑님 허고 찾은게 <정읍소성,249>
- b. 고맙다 토끼님 그때는 인자 토끼님이여 <정읍신태1,517>
- c. 여시란 놈을 보고 여시님 여시님 나를 살려 주면은 <정읍신태 1,538>

다섯째, ‘매늘님, 아들님, 애기씨님, 마느래님, 아씨님, 각시님, 시아재님’과 같이 손아랫 사람을 존대하여 지칭할 경우나 호칭에 쓰이고 있고, ‘당신님, 김효자님, 박생원님, 효자님’과 같이 성씨를 동반한 직책명을 지칭할 경우에 쓰이고 있다. 물론 ‘아드님, 따님’ 등의 경우는 지칭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손아랫 사람에게는 존칭을 할 수 없으나 상대자가 존대자일 경우, 상대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존칭을 할

수 있으므로 지칭의 경우로만 한정해서 사용된다.

- (16) a. 아 근데 도련님은 이쁜 도련님이 어찌 보따리 <운주면,325>
 b. 그 매놀님의 가서 보고 자숙은 낡으면은 <고산면,572>
 c. 아드님 아드님 들오쇼 <정읍교부1,340>
 d. 여보시오 애기씨님 내 이렇게 되면 내가 죽어도 <태인면,82>
 e. 에라 아씨님 가서 주무시라고 험게로 <입암면,761>
 f. 아씨님 안녕하셔요? 허고 오고 <이평면,121>
 g. 우리 각시님도 볼 텐디 <서수면,831>
 h. 아 시아재님 아무 때 쇠매를 가지고 <죽포면,403>
- (17) a. 달신님의 시골에 가면 죽은께 가지 마쇼 <정주읍,97>
 b. 초군들이 조아무개님의 시계 지넨디 <칠보면,538>
 c. 그 영광 아무 싸는 김효자님의이니 그렇고 아시라고 <고수면,249>
 d. 가서 그 효자님 보고 가자님께 <고수면,250>
 e. 그러면 여그 달신님을 불러면 여그 마강밀으로 와 <무장면,349>

2.3. 현대국어에서 '-님'의 쓰임

현대국어에서 존칭 접미사 '-님'의 기능도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일단 존칭 접미사 '-님'의 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말 큰사전'의 용례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예가 쓰이고 있다.

첫째,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 (18) 누님, 도련님, 맏아버님, 부모님, 시부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서방님, 아주머님, 아주버님, 어머님, 오라버님, 조모님(祖母-), 조부님, 큰아버님, 큰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

둘째, 직책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 (19) 객님(客-)4, 검님5, 고장수님6, 금성님(錦城-), 마님, 손님, 스님, 원님, 윗님7, 장님, 주님(主-), 천님(天-), 하님8, 기수님(旗手-), 나라님, 나라마님, 남스님, 마나님, 마마님(媽媽-), 버꾸님(法鼓-), 본마나님, 부처님, 복수님, 사모님(師母-), 생원님(生員-), 선다님(先達-), 선생님, 성제님(聖帝-), 스승님, 신령님, 여스님, 영감님, 영감마님, 임금님, 주인님, 주인마님, 칠성님(七星-), 큰스님, 터줏님, 하스님

넷째, 의인화된 무정물 체언에 쓰이고 있다. 이때도 호칭과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 (20) 다님, 달님, 해님, 햇님

넷째, 존대하는 상대자에게 소속된 손아랫 사람을 존대하여 지칭할 경우에 쓰이고 있다.

- (21) 따님, 아드님, 아우님, 며느님, 사위님, 외따님, 조카님, 큰따님, 벗님

위의 용법 외에도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예로는 ‘홍길동님’과 같이 이름에 ‘-님’을 붙여서 주로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님’의 존칭 범위는 ‘凡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길동 형, 홍길동 아저씨, 홍길동 할아버지’ 등을 ‘홍길동님’으로 씀으로써 경어법의 간결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살펴 본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의 ‘-님’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객승’의 높임말. 객스님
5. ‘신령님’의 높임말.
6. 남사당패에서, 장구잡이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
7. ‘심마니’의 높임말.
8. 계집종을 대접하여 부르거나, 계집종들이 서로 높이어 부르는 말.

① 접미사 '-님'은 중세국어에서 평칭의 친족 호칭어에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일차적인 기능으로 존칭의 호칭어로 쓰이게 되고, 이차적인 기능으로는 존칭의 지칭어로 쓰이게 되었다.

② 존대자의 벼슬, 직업 이름에 붙여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인다.

③ 의인화된 무정물 체언에 쓰여 호칭어와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④ 의인화된 유정물 체언에 쓰여 호칭어와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⑤ 손아랫사람에게 연결될 때는 주로 상대자가 화자보다 존대자일 경우인데, 존대자에게 소속된 손아랫사람일 경우에도 '-님'을 붙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님'의 일차적인 기능이 지칭어의 기능이고 이차적인 기능으로 호칭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⑥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에 '-님'이 연결되는 예가 많다가 후대로 갈수록 한자어에 많이 연결되어 생산성이 확대된다.

⑦ '-님'의 기능이 확대되어 성명에도 '-님'을 붙여서 호칭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3. 의존명사 '분'의 쓰임

의존명사 '분'은 비칭인 '놈'과 평칭인 '이'에 상대하는 존대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이 분, 저 분' 등으로 쓰이거나, 사람을 높이어 세는 단위의 하나로 쓰여 '한 분, 두 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먼저 중세·근대국어에서 '놈, 이'의 쓰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사람'을 나타내는 평칭의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구두땀이'처럼 '구두를 닦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가 접미사로 기능하여 생산성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 '놈'은 중세국어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평칭의 의존명사로 쓰이다가 근대국어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비칭의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다.

한편 현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 '놈'이 접미사화하여 비칭의 접미사 '-놈'으로 쓰이고 있다.

(22) a. 늘그니 病호니 주근 사롬 보시고 世間 슬히 너기샤 (釋詳6,17)

b. 구두땀이, 신문팔이, 냉마주이, 때밀이(송철의,1992:128)

- (23) a. 떠디 물흙 노미 하나라 <훈언>
 b. 흔 노미 큰 象 타고 <월석10,28>
 c. 늘근 노린 지비로다 <두초7,6>
 d. 늘 자(者) <석천,42>
 e. 그 늘들이 므엇하리오 <노걸대上,24>
 f. 사내^놈, 아우^놈, 동생^놈

‘놈’과 ‘이’와 ‘분’은 그 쓰임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현대 국어에서 ‘놈’과 ‘분’은 앞에 내포문이 관형절로 나올 때는 *젊은놈, *젊은 분’과 같이 접미사가 되지 못하나, ‘이’는 ‘젊은이, 어린이’와 같이 접미사로 기능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앞에 관형수사가 나올 때 *한 이, * 두 이’와 같은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그, 저’와 같은 대명사가 관형어로 나올 때는 제약이 없다.

- (24) a. 젊은 ^놈(*젊은^놈), 어린 ^놈(*어린^놈)
 b. 젊은 이(젊은^이), 어린 이(어린^이)
 c. 젊은 분(*젊은^분), 어린 분(*어린^분)

- (25) a. 한 ^놈, 두 ^놈
 b. *한 이, 두 이
 c. 한 ^분, 두 ^분

- (26) a. 이 ^놈, 그 ^놈, 저 ^놈
 b. 이 이, 그 이, 저 이
 c. 이 ^분, 그 ^분, 저 ^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의존명사인 ‘분’의 쓰임이 접미사로 확대되어 ‘형제분, 동생분’ 등과 같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존칭접미사 ‘-님’의 유추에 의해 용법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의존명사 ‘분’과 지칭접미사 ‘-분’의 쓰임을 중세국어에서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 보기로 한다.

3.1. '분'의 역사적 쓰임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분'은 존대자를 지칭하는 의존명사와 존대자를 세는 단위의 하나인 의존명사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었다.

- (27) a. 세 분이 프셔리에서 자시고 <月釋8:93b>
- b. 이튿날 아츠틈 세 분의 門 밧과 나샤 <月釋8:95a>
- c. 尊은 노프신 부니시니라 ㅎ는 프디라 <釋詳序,1a>
- d. 時祭 네ㄱ티 호디 두 분의 ㅎ라 <家禮10,39b>
- e. 祭 ㅎ는 饌물 ㄱ티 호디 ㅎ 분의 ㅎ라 <家禮10,41b>
- f. 격기 ㅎ는 분네게로서도 극진한 일이읍도셔 <捷解初6,15b>
- g. 接待 ㅎ는 분네의 禮를 술와 주소셔 <捷解初6,17a>
- h. 앓가 두 분의셔 권하야 니락오니 <捷解初8,10b>
- i. 직물 잇는 저 분네는 선심보시 ㅎ려니와 분전 업는 이 분네는 무어스로 보시홀고 <슈선곡1b>
- j. 여러분 중에도 自家의 악한 일은 <尋常小學1,11b>
- k. 여보시오 그 분을 보와하니 의복은 남루하니 <남원고사5,18b>

3.2. 전북 방언의 의존명사 '분'과 접미사 '-분'의 쓰임

방언에서 '분'의 쓰임을 살펴 보면, 문헌어에 나타나는 의존명사의 기능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의존명사로 관형어 '이, 그, 저'와 어울린다.

- (28) a. 그 분이 살인자닝게 <운주면,307>
- b. 어느 분이 얘기할 때는 <운주면,346>
- c. 이 분네가 거기서 그것을 판단을 <삼례읍,758>

둘째, 의존명사로 관형수사인 '한, 두, 세' 등과 어울린다.

9. 유창돈(1975:211)에서는 '-분'을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 (29) a. 옛날 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 <완산동,49>
 b. 지리를 배운 분이 세 분이 배웠어 <운주면,338>

셋째, 의존명사로 관형어가 앞에 나와 '분'을 꾸미는 구성에서 쓰인다.

- (30) a. 그 오씨네 집안 원 시조되는 분들의 한 동네에 살았어 <전주 시,65>
 b. 나무하러 온 분들 혹 지나가는 분들에게 <운주면,418>
 c. 그전에 한 효자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뒤흔고 <운주면,467>
 d. 그래서 그 아덜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운주면,469>

넷째, 선행하는 명사에 접미되어 존칭의 지칭 접미사로 쓰인다. 이 유형은 명사로 쓰이는 '분'이 변화를 일으키어서 접미사로 그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되는 분'의 문장구조에서 '형제분'이 파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형제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형제 + 분'의 구조로 복합명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복합어 형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가정은 설정되기 어렵다. 둘째로, '형제분'을 '형제님'의 구성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아서 '분'을 접미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님'이 연결되는 명사는 지칭어보다는 그 일차적인 기능인 호칭어로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분'이 지칭 접미사로 기능하면서 존칭의 빈칸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서 '-분'은 '형제되는 분'과 같은 문장에서 파생되어 접미사가 되는 관계로 '-님'과는 달리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 (31) a. 그래서 형제분이 사는데 형제분이여 <운주면,423>
 b. 구씨가 효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고산면,595>
 c. 아 이렇게 남자분들이 친구가 있구 <동상면,620>
 d. 60덕은 노인이 여러분께 한마디 하것어 <삼해읍,784>
 e. 그 내외분을 교자에 잘 모시고 <정읍신태1,411>
 f. 그 양위분한테 <태인면,49>
 g. 상감 자제분이 채장시가 웬 일이요 <태인면,310>

- h. 아 동네분들은 안 물려준다커니 <태인면,333>
- i. 그래서 송광사 주지분은 모두 용한 분들이라 <252>
- j. 그 경상도분이든가 충청도분이든가 자세히 <353>
- k. 근디 장성분인디 장성분인디 국지사여 <임피면,891>

3.3. 현대국어에서 '-분'의 쓰임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등재된 예는 '모녀분, 모자분, 내외분, 양위분(兩位-), 양주분(兩主-), 여러분' 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한자어의 경우에만 '분'이 연결되어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예만이 사전에 등재되는 이유는 '-분'의 접미적 기능이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생산성을 갖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헌 자료에서 '-분'이 접미적 기능을 갖춘 예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분'이 생산성을 가지고 접미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2) 모녀분 : '모녀'의 높임말.

모자분 : '모자'의 높임말.

양위분(兩位-) : '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존대할 사람의 내외분.'

양주분(兩主-) : '부부'의 높임말.

여러분 : '여러 사람'의 높임말.

이런 예외에도 '형제분, 가족분, 동생분, 기사분'

이상으로 살펴 본 의존명사 '분'과 접미사 '-분'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의존명사로 관형어 '이, 그, 저'와 어울린다.
- ② 의존명사로 관형수사인 '한, 두, 세' 등과 어울린다.
- ③ 의존명사로 '분'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앞에 나와 '분'을 꾸미는 구성에서 쓰인다.
- ④ 선행하는 명사에 접미되어 존칭의 지칭 접미사로 쓰인다.
- ⑤ 접미사 '-분'에 선행하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경우가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접미사 '-님'과 의존명사에서 접미사화한 '-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와 더불어 방언자료 그리고 현대국어에서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님'의 쓰임은 일차적으로 존대자에 대한 호칭접미사로 쓰이고 있었고, 이차적으로는 존대자를 지칭하는 지칭접미사로 쓰이고 있었다. 이 기능이 확대되면서 아랫사람에게도 존대를 할 때도 연결되는데, 이때는 대개는 존대자인 상대자와 관련된 아랫사람일 경우에 그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지칭어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님'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접미사 '-님'은 중세국어에서 평칭의 친족 호칭어에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일차적인 기능으로 존칭의 호칭어로 쓰이게 되고, 이차적인 기능으로는 존칭의 지칭어로 쓰이게 되었다.

② 존대자의 벼슬, 직업 이름에 붙여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인다.

③ 의인화된 무정물 체언에 쓰여 호칭어와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④ 의인화된 유정물 체언에 쓰여 호칭어와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⑤ 손아랫사람에게 연결될 때는 주로 상대자가 화자보다 존대자일 경우인데, 존대자에게 소속된 손아랫사람일 경우에도 '-님'을 붙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님'의 일차적인 기능이 지칭어의 기능이고 이차적인 기능으로 호칭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⑥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에 '-님'이 연결되는 예가 많다가 후대로 갈수록 한자어에 많이 연결되어 생산성이 확대된다.

⑦ '-님'의 기능이 확대되어 성명에도 '-님'을 붙여서 호칭 및 지칭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분'은 원래 의존명사였던 것이 접미사로 변한 것으로 존대자를 호칭하는 호칭접미사 쓰이지 않고, 반드시 존대자를 지칭하는 지칭접미사로만 쓰이고 있다. 그 쓰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존명사로 관형어 '이, 그, 저'와 어울린다.

② 의존명사로 관형수사인 '한, 두, 세' 등과 어울린다.

③ 의존명사로 '분'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앞에 나와 '분'을 꾸미는 구성에서 쓰인다.

- ④ 선행하는 명사에 접미되어 존칭의 지칭 접미사로 쓰인다.
- ⑤ 접미사 '-분'에 선행하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 기주연. 1994.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1), 태학사.
- 김종원. 1984. 존칭에 관한 소고, '국어 경어법 연구' 수록(집문당).
- 김중훈 편. 1984. 국어경어법 연구, 집문당.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 21, 태학사.
- 김해정. 1995. 사서언해의 비교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박양규. 1991. 국어 경어법의 변천, 새국어생활 1-3.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안병희. 1963. 15세기 국어의 경어법 접미사 '-님'에 대하여, 문리대학보(건국대)1.
- 유창돈. 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유창돈. 1975. 이조 국어사 연구, 이우출판사.
- 이익섭.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 이주행. 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 이태영. 1997. 역주 첩해신어, 태학사.
- 임홍빈. 1990. 어휘적 대우와대우법 체계의 문제, 강신항교수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태학사.
- 정호완. 1987.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
- 조일규. 1997. 파생법의 변천 1, 박이정.
- 조항범. 1996. 국어 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 홍윤표. 1993. 국어의 복수 표시 방법의 변천, 동양학 23.
- 홍윤표 외. 1996. 17세기 국어 사전, 태학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학과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570-749
 E-mail : hello@educa.wonkwang.ac.kr